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유니버설  
사인시스템 평가  
-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universal sign system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Focused on Gamcheon Culture Villager -

주저자

정원준 (Chung, Won-jun), wjchung@tu.ac.kr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투고일	2020.06.01	심사일	2020.07.23	게재확정일	2020.07.27
-----	------------	-----	------------	-------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18A039)

#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유니버설 사인시스템 평가

-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universal sign system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Focused on Gamcheon Culture Villager -

## 목 차

1. 서론
    - 1.1. 연구목적과 배경
    - 1.2. 연구방법과 범위
  2. 이론적 고찰
    - 2-1. 감천문화마을 선행연구
    - 2-2. 부산의 도시재생사업과 감천문화마을
  3. 유니버설디자인과 감천문화마을
    - 3-1. 유니버설디자인의 재해석
    - 3-2. 사인시스템현황과 사례조사
    - 3-3. 분석결과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vailability, convenience, and usability from foreign tourist's perspective of Gamcheon Culture Village in Busan, based on universal design. This village has a group of residential houses formed like a staircase on mountainsides at the foot of a mountain in a picturesque way. This target location has great preservative value both historically and culturally, is voted the topmost place foreign tourists want to visit, and is currently going to over-tourism and gent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sign design problems occurring due to the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 that the universal

design ideology aims for according to the visual sign system evaluation in a situation where foreign tourists are increasing.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study, the range of the seven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was reinterpreted in terms of signs, and a field study was conducted for the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f 6 items, including directional signs and restriction signs. As a result, most of the signs installed in the target area was found to have no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and were unsafe.

There were especially many signs without a foreign language as well as cases with unclear and directions. Moreover, the varying materials were hard to be distinguished, hence decreas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signs among the store signs were installed in a complicated manner without flexibility. Overall, there wa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foreigners. Therefore, a policy to fix these problems is in great need, and we will conduct a follow-up study on sign system development.

**keyword**

Sign System, Universal Design, Gamcheon Culture Villager

**논문요약**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용성, 편리성, 사용성에 주목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산복도로와 산자락 아래 계단식 집단주거형태로 형성된 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형성되어 있다. 대상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보존 가치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중 '부산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오버투어리즘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시각적 사인시스템의 평가에 의해 유니버설디자인이념에서 지향하고 있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사인의 디자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사인의 측면에서 적용범위를 재해석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유도사인, 규제사인을 포함하여 6가지 아이템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사인은 통일성이 없고, 안전하지 않으며,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사인이 많고, 방향성이 애매모호하여 어디를 가야하는지를 혼란스럽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소재가 다양하여 식별하기 힘들어 효율성이 없었으며, 상점 간판사이에 사인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유연성이 없었으며 전반적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후속연구로서 사인시스템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어**

사인시스템, 유니버설디자인, 감천문화마을

**1. 서론**

1-1. 연구목적과 배경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목적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국적, 장애, 연령 등에 차별 없이 인간을 위한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도시의 건축물, 사인환경, 제품등을 포함한 수많은 생활환경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의 관점에서 개선되어가고 있다. 특히 유명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인시스템을 비롯한 공공 시설물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성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유니버설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인시스템에 주목했다. ‘2019년 부산 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부산시는 2019년도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0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8만명보다 8.9%(22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증가 이유로는 국적별 맞춤형 테마관광 콘텐츠확충, 개별 또는 특수목적 관광객 집중홍보마케팅 전개 등 관광객 유치 다변화정책과 북미정상회담, 남북교류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안’, ‘음식’, ‘출입국절차’ 등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언어소통”, 관광정보(안내표지판 등) 등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부산방문지역을 조사한 결과, ‘감천문화마을(60.4%)’로서 가장 높고, ‘자갈치시장(59.5%)’, ‘BIFF광장(남포동 일원)(5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의 불편제안사항에서 ‘외국어 안내판이 부족함(42건)’이 가장 높게 나왔다.<sup>1)</sup>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부산의 대표적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행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안내사인시스템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점에서 조사·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시각기호만으로 원하는 목적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관광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서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니버설 7원칙을 기본으로 한 이용성, 편리성, 사용성 등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관광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시각적 유도사인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이념에서 지향하고 있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원활한 목

적지 이동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 1-2. 연구방법과 범위

최근 외국인의 발길이 증가추세에 있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을 설정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의한 안내사인을 현장방문에 의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조사함으로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감천문화마을의 안내사인 시스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첫 번째 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히어링 조사와 현지동반조사를 실시하여 사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추출했다.

상기의 두 가지 시점을 분석하여 정상인의 시각정보와 위치검색정보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청취를 하고 사인시스템에 대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현장조사 실시를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감천문화마을의 유도사인시스템에 외국인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 2)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2. 이론적고찰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환경이나 시설,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사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감천문화마을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동기, 부산의 도시 재생사업과 감천문화마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2-1. 감천문화마을 선행연구

감천문화마을은 최근 부산의 가볼만한 곳 1위로 떠오르며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유명한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주로 도시계획, 관광,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오버투어리즘<sup>2)</sup>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해결 사례연구”를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안소현(2020, 국토연구원)은 주민수보다 200~300배 이상의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 과잉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을 했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률의 급증과 젠트리피케이션<sup>3)</sup>이 발생하며 관광명소로 부상함에 따른 마을공동체 이해 집단 간 피로감과 이로 인한 마을의 변화에 주민들의 원망과 사생활침해, 소음공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강인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은 “마을 만들기의 주제별 상호관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방향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일본 효고현 고베시 기타노이진간이 과거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빠르게 관광명소로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시계열적 분석모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민정(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은,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감천문화마을의 현장답사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으로서의 공공미술에 대해 고찰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을 하여 지역 문화마을로서의 잠재성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순엽(동명대학교 석사논문, 2017)의 “프로젝션 맵핑 구현을 통한 도시벽화 콘텐츠 개발 연구”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물고기벽화’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맵핑 구현을 응용한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결과 도시벽화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융합미디어의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이승원(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의 “감천문화마을 브랜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감천문화마을의 브랜드 경쟁력 환경평가를 통해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와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KLBCI)의 변수들

<표 1> 감천문화마을을 키워드로 한 연구동향

출처	제목	내용
1)2020, 안소현, 국토연구원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 사례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1)오버투어리즘관점에서 바라본 감천문화마을의 공동체갈등 분석 2)5개 전문가 시각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구축 및 제안
2)2019, 강인한,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석사논문	마을만들기의 주제별 상호관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 고베시 기타노이진간과 부산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1)페스트포프 삼각형모델의 개념을 활용한 정부기관, 민간, 주민의 시계열적 비교분석 2)일본과 한국의 대상지선정을 통한 참여주체를 통한 비교분석
3)2017, 김민정,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논문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 감천마을 중심으로-	1)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개념확립 2)현지답사를 통한 공공미술의 지역경쟁력 분석
4)2017, 이순엽, 동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논문	프로젝션 맵핑 구현을 통한 도시벽화 콘텐츠 개발 연구 -감천문화마을 ‘물고기벽화’를 중심으로	1)기존의 벽화를 상대로 프로젝트 맵핑 구현을 위한 디자인개발 연구 2)뉴미디어에 의한 도시벽화의 확장 가능성제시
5)2016, 이승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감천문화마을 브랜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감천문화마을 브랜드경쟁력향상 방안 제시 및 방문객 대상 브랜드경쟁력 분석
6)2015, 고동완,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박사논문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연대 변화 연구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생활공간의 인위적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대 변화특성 분석
7)2015, 전재균, 부경대학교 대학원경영학과 석사논문	IRP분석을 활용한 감천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 방안연구	1)감천문화마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문화적요소를 관광적인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 연구 2)대상지의 활성화추진을 위한 만족도 분석
8)2013, 김유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마을 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부산 감천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1)감천문화마을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및 영향에 대한 분석
9)2012, 김창수, 한국지방정부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창조전략	1)도시창조의 맥락에서 바라본 문화마을 재생전략평가 2)공무원, 지역주민의 심층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연구

을 인용하여, 창조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공공브랜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성공적인 브랜드로 되기 위한 감천문화마을만의 지속 성장 가능한 브랜드사업의 추진과 주민, 행정, 기업 전문가 등 거버넌스적인 협력 및 지원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고동완(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박사논문 2015)은,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연대 변화 연구”에서 감천문화마을을 테마로 하여 지역의 관광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구성원 간의 연대 변화특성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에 지역의 젠트리피케이

선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IRP분석을 활용한 감천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 방안연구(2015, 전재균, 부경대학교 대학원경영학과 석사논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2013, 김유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등이 있다. 현재까지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도시재생, 관광,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 2-2. 부산의 도시재생사업과 감천문화마을

### 2-2-1.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 현황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중심시가지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정책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과 결합이 된다면 단순한 개념을 넘어선 전반적인 변화의 시도가 된다.<sup>4)</sup> ‘도심재생’, ‘문화도시’등의 이름으로 개발된 전국의 유명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성의 너리굴 문화마을, 광주 서구의 향토 문화마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강원도 평창의 효석문화마을 등이 있으며 부산 지역에도 영도의 흰여울 문화마을, 서구의 비석 문화마을, 감천동의 감천문화마을 3곳에 이른다. 지자체마다 특화된 문화예술 거점지역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민간기업, 투자자 등의 만족을 통하여 문화를 산업으로 끌어 들이고자 하는 지자체의 전략방향 중의 하나이다. 부산시는 2010년도부터 부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협력아래 낙후된 지역, 산복도로, 공폐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부산행복마을사업을 진행하여 다함께 행복한 부산 도시재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마을의 경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민의 역량강화, 노후주거지 정비,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행복마을사업은 부산시에서 2013년부터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주민, 전문가 협업의 유기적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부산 북구 구포2동의 야시고개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약

<표 2> 부산 행복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년도	선정지역
2010	1)북구 구포2동 야시 고개마을 2)사상구 괘법동 쾌내마을 3)사하구 괴정2동 까치 고개마을 4)서구 아미동 아미 농악마을
2011	1)서구 초장동 다문화 한가족 행복마을 2)동구 좌천동 고치대 행복마을 3)영도구 동삼 주공1단지 행복마을 4)부산진구 개금2동 1,3세대가 함께하는 행복마을 5)동래구 낙민동 기차길 옆 유쾌한 행복마을 6)남구 우암동 양달 행복마을 7)북구 덕천동 철쭉 행복마을 8)해운대구 재반 무지개 행복마을 9)사하구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 10)금정구 선두구동 행복마을 11)사상구 주례1동 온골 행복마을
2012	1)서구 동대신2동 덕밭골 행복마을 2)동구 범일4동 오색빛깔 행복마을 3)부산진구 당감1동 사랑이 숨쉬는 본동 행복마을 4)남구 갯민2동 참살이 행복마을 5)북구 금곡동 함께 꿈꾸는 공창 행복마을 6)해운대구 반여4동 삼어마을 7)금정구 남산동 머드레 행복마을
2013	1)서구 남부민동 셋디마을 2)영도구 청학1동 해돋이마을 3)동래구 명장2동 시냇골마을 4)해운대구 반송3동 필봉오름마을 5)금정구 장전1동 미리내마을 6)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7)사상구 덕포1동 한내마을 8)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2014	1)해운대구 반송동 장산길마을 2)중구 보수동 행복마을 3)금정구 산성 행복마을 4)사상구 모라3동 행복마을 외
2015	1)해운대구 담안골 행복마을 2)금정구 머드레마을 외
2016	1)북구 덕천3동 철쭉 행복마을 2)금정구 부곡4동 희망 숲속마을 3)영도구 중정동 갈포 행복마을, 도래샘마을 4)서구 동대신2동 덕밭골 벽화마을 외
2017	1)금정구 남산동 요산문화로 보행환경 개선, 금사동 회동 도래마을 2)영도구 봉산마을 3)사상구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 외
2018	1)중구 북병산마을 2)서구 고분도리마을, 부민 상생마을 3)영도구 조내기마을, 흰여울 문화마을 4)부산진구 호천마을 5)동래구 동래 온천마을 6)사하구 동매 사랑마을, 오작교마을, 수풀 메아리 회터마을, 바닷가 사랑마을 7)금정구 석골 마실마을 8)수영구 물만골마을 9)사상구 행복담은 갤러리 부역마을, 함께해요 엄궁마을

100여개 이상의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회관건립, 쉼터 조성,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산복도로 지역이나 행복마을 지역이 낙후된 곳이라는 점이다. 즉 언젠가 재개발이 가

능한 주거환경, 경제·문화적 결핍지역이고 다양한 상징적 건축물은 재개발 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sup>5)</sup>

### 2-2-2. 감천문화마을의 고찰

환경, 사회, 경제의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과거 정부 중심의 공공 주도에서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주도로 변화되고 있다.<sup>6)</sup>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시 사하구 감내2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약40년 이상 부산의 개발에서 소외된 해발 12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저소득층 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최근의 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도시와는 다르게 해방시기와 한국전쟁, 근현대사의 발자취와 기록 등 당시 과거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마을이다.



<그림 1> 과거의 감천문화마을(한국전쟁 당시의 감천문화마을)



<그림 2> 현재의 감천문화마을:현재의 감천문화마을(2020.5.23. 연구자가 촬영)

이 마을의 특징은 앞에 있는 집이 뒷집이 가리지 않게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산자락의 동선을 유지하며 차곡차곡 지어진 계단식 집단거주형태로서 감천동만이 특수한 환경 즉,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다.<sup>8)</sup> 2009년 지역의 예술문화 단체인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대표: 진영섭)’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공모에 10여 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마을 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없었으나 2009년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를 스타트로 2010년 ‘미로미로 프로젝트’ 등 공공 미술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마을이라는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sup>9)</sup> 2020년 현재 부산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며 방문객이 300만 명을 초월하고 부산을 관광 도시로서의 국제적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 선정되어 매년 수십만 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60%이상이 외국인관광객으로서 마을의 유명촬영지나 예술작품 등을 비롯해 인기드라마,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등에 자주 방영됨으로써 감천문화마을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국제적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sup>10)</sup>

### 2-2-3. 감천문화마을의 현황

부산의 감천동 문화마을은 산자락 아래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형성되어 있다. 골목 곳곳에 조성된 지역예술가들의 조형작품,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로 조성된 “어둠의 집”, “사진갤러리”, “빛의 집”등 테마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관광지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아이콘”, “세계적인 도시재생의 롤 모델”, “한국의 산토리니”,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보존과 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을”, “하늘마루”, “부산에 가볼만한 곳 1위”등 갈수록 지역특성에 맞는 수식어가 붙으며 그 명성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다.<sup>11)</sup> 하지만 최근 감천 문화마을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과잉 유입으로 2017년 205만명에서 2018년 257만명, 2019년 309만명 이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마을의 주민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수보다 300배 이상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오버투어리즘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시지가상승률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마을에서는 관광객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유발을 풀어나가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감천 문화마을은 1957년 6.25피난 시 태극도 신도의 집단 이주 정착촌으로 당시 이주 주민들은 감천2동에 정착하며 조망권 보장을 위한 계단식 집단주택과, 뒷집의 모든 길이 통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보유하게 되었다.<sup>12)</sup> 본 연구에서 감천문화마을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마을이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가치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외국인방문객 중 부산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3. 유니버설디자인과 감천문화마을

#### 3-1. 유니버설디자인의 재해석

역사적 문화와 지역의 상징성을 전달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효과적이고 빠른 목적지로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사인시스템의 역할은 중요하다.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는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은 미국의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 1942-1998)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건물의 접근성관련 법률의 초안을 디자인하는데 관여하였으며 지금도 건축디자인 등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7가지 원칙중에서 본 연구는 적용범위를 사인의 측면에서 재해석 하였다.

1)공평성(Equitable Use): 누구라도 공평하게 시설이 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한다.

- 모든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경로로 한다.
-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같은 동선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고 차별감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안심감·안전한 디자인으로 한다.

- 모두에게 시각적 매력있는 디자인으로 한다.

2)편리성(Flexibility in Use):사용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은 시설로 디자인한다.

-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능력에 맞는 사용방법을 선

택 가능하도록 한다.

- 누구라도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며, 알기 쉽고 간단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한다.

3)단순성(Simple and Intuitive to Use):시스템은 모두에게 사용방법이 간단하며 알기 쉽게 디자인 한다.

- 시스템사용방법을 알기쉬운 디자인으로 한다.

- 사용정보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한다.

- 이동하기 쉬운 경로로 하며, 이해하기 쉬운 안내, 화상실 픽토그램 등 경험하지 않아도 찾기 쉬운 동선으로 한다.

4)정보성(Perceptible Information):모두에게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중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간편의 글씨나 그림, 음성 등을 병용한다.

- 안내지도, 사인 등의 정보표시는 누구라도 식별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다양한 언어, 음성정보 등을 통해 누구라도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한다.

5)위험성(Tolerance for Error): 모두에게 안전한 디자인으로 한다.

- 누구라도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가 없도록 배려한다.

- 시설, 기구 등 조작이 안전한 디자인으로 배려한다.

- 갑작스런 위험이나 실수로 연결되지 않는 안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다.

- 누구라도 피난유도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디자인한다.

6)효율성(Low Physical Effort):누구라도 무리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효율성이 높고 편하며 피로도가 낮은 디자인으로 한다.

- 안내간판, 촉지 유도사인 등이 편하고 생리적으로 정보전달이 용이하게 디자인한다.

7)공간성(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사용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를 확보한다.

- 체격이나 자세, 이동능력을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공간과 크기로 한다.

- 다양한 신체적 특징에 대응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재해석은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는 측면보다도 사인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

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과 사회에 함께하며 생활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패러다임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추후에도 많은 연구가 계속 뒤따르게 될 것이며 감천문화마을도 외국인의 방문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지역문화와 함께 안심하고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 3-2. 사인시스템 현황과 사례조사

감천문화마을에 있어서 사인시스템은 국내인을 포함하여 외국인방문객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이용자들의 정보소통에 대한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기호로서의 정보전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적인 사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감천문화마을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불특정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천문화마을의 사인시스템현황과 유형별 분석을 하였다.

#### 3.2.1. 현장조사

- 조사일시 및 장소: 2020.5.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감내1로 200 감천문화마을
-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2명과 함께 동행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지역의 범위는 감천문화마을에서 제작한 스탬프지도를 이용하여 '마을안내센터에서 '희망의 메시지' 22곳을 현장조사와 UD체크리스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감천 문화마을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인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 1)유도사인

<표 3> 유도사인 조사결과

동행+현장조사	
1	.유도사인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2	.폰트, 사이즈, 컬러 등이 각각 달라서 통일감이 없다.
3	.유도를 위한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다.
4	.소재가 플라스틱, 스티로폼, 나무 등으로 혼재되어있다
5	.한국어로만 되어있는 간판이 많다.
6	.복잡하게 배치되어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안됨.



#### 2)규제사인

<표 4> 규제사인 조사결과

동행+현장조사	
1	.규제사인의 통일감이 없다.
2	.포토존 주차금지에 외국어가 표기되어있지 않다.
3	.소재가 오염되어있어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4	.폰트, 사이즈, 컬러 등이 각각 달라서 복잡하다.
5	.금연사인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서 떨어질 것 같다.
6	.감천문화마을과 사하구의 규제사인이 혼용되어 있다.



### 3)화장실

<표 5> 화장실사인 조사결과


동행+현장조사	
1	.화장실사인이 크기, 재질 등 통일감이 없다.
2	.픽토그램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어 복잡하다.
3	.소재가 오염되어있어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4	.폰트, 사이즈, 컬러 등이 각각 달라서 복잡하다.
5	.유도방향을 알 수 없는 표시가 많다.



### 4)공영주차장

<표 6> 공영주차장사인 조사결과

동행+현장조사	
1	.공영주차장 사인의 통일감이 없다.
2	.소재가 다양하고 외국어가 표기되어있지 않다.
3	.소재가 오염되어있어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4	.폰트, 사이즈, 컬러 등이 각각 달라서 복잡하다.
5	.방향을 알 수 없는 주차사인이 많다.



### 5)휴지통

<표 7> 휴지통사인 조사결과


동행+현장조사	
1	.소재와 크기와 디자인인 다르다
2	.다양한 외국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3	.처음 보는 방문객은 휴지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4	.종류가 다양하고 분리수거가 구분이 어렵다.



### 6)종합안내지도

<표 8> 종합안내지도 조사결과

동행+현장조사	
1	.소재와 크기 등 통일감이 없다.
2	.외국어 표시가 되어있는 않는 지도가 있다.
3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4	.위치정보를 알기 어려운 지도가 있다.



#### 3-3. 분석결과

감천문화마을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사인을 비롯하여 6개 종류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방문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감천문화마을의 전반적인 사인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가 앞에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재해석한 내용과 체크리스트 평가한 결과, 유도사인의 경우, '감내 아랫길', '노인보호구역'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인이 이동 경로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등 시각적으로 사

인의 크기, 컬러를 포함하여 통일성이 없고 복잡하며, 정보를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외국어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사인이 많았다. 규제사인의 경우, 대부분의 사인이 외국어가 표기되어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고 정보전달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 금연사인의 경우 효율성이 낮은 스티로폼, 종이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낭떠러지 주의’사인의 경우도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화장실사인의 경우, 정보성과 식별하기 어려운 사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사인의 디자인 종류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피로도가 높고 효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문표기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한글과 영문이 혼용되어있는 경우가 있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사인의 크기와 컬러가 다양하며 한글로만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방향성이 애매하여 위험하며 외국어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사인도 설치되어 있다. 감천문화마을 출입구정면에서 바라본 주차장의 4개 사인이 공간성이 확보되지 않아 복잡하게 되어있는 등 픽토그램만으로는 정보전달이 어려운 불편한 디자인이 많았다. 휴지통의 경우, 휴지통의 위치, 분리수거구분 등, 처음 방문하는 경우 휴지통으로 인식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안내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안내판 지도위치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지도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등 소재와 크기도 유연성과 통일감이 없었다.

<표 9> 감천문화마을의 UD체크리스트 평가결과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공평성	유연성	단순성	정보성	안전성	효율성	공간성
유도사인	×	○	▲	×	▲	×	○
규제사인	×	×	×	×	×	○	×
화장실	×	○	▲	○	▲	×	○
공영주차장	×	×	×	×	×	○	×
휴지통	×	○	▲	○	×	▲	○
종합안내지도	×	×	×	×	○	×	×

## 5. 결론

사인(sign)이란 ‘표시’, ‘부호’, ‘신호’등,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기호로서 표시한 것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sup>14)</sup>으로서 시공될 공간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디자인하여 쉽게 이해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인의 기능적 측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가독성, 단순성, 통일성, 연속성, 명확성, 표준성 등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사인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를 위한 사인시스템의 기능은 매우중요하며 도시환경의 미적수준을 좌우 하며 그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2019년 부산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감천문화마을의 사인시스템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적용시켜 평가한 연구다. 유도사인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인관련 시설의 현장방문 분석결과, 대상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사인이 통일성이 없고 안전하지 않으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사인이 많으며, 방향성이 애매모호하여 어디를 가야하는지를 방향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소재가 다양하여 식별하기 힘들고 많은 간판사이에 사인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유연성이 없었으며 전반적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미주구주지역(77.6%)으로서 중국, 일본 등 타 국적에 비해 높으며 내국인보다 외국인방문객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2019 부산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해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천문화마을 사인시스템평가에 대한 1차 기초연구로서 후속연구로서 사인시스템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 부산광역시, 『2019 부산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주)서던포스트, 2019, pp.10-20
- 2)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네이버 지식

백과.

- 3)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네이버지식백과.
- 4) 김민정,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사례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8.
- 5) 구본호,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해피북미디어, 2013, p.20.
- 6) 김경옥,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해피북미디어, 2013, p.20.
- 7) 과거 한국전쟁당시의 감천문화마을 모습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lsmartsjun&logNo=221375285401>
- 8) 김창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p.7
- 9) 강인한, 「마을만들기의 주제별 상호관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22
- 10)공감언론 뉴시스(newsIs)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1938&clD=10899&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1938&clD=10899&pID=10800), 부산 감천마을 외국인관광객들 원더플
- 11) “부산의 가볼만한 곳 1위” 부산 감천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kayak71/221331703882>
- 12) 이승원, 「감천문화마을 브랜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7
- 13) 위키백과, 유니버설디자인이란?[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B%88%EB%B2%84%EC%84%A4\\_%EB%94%94%EC%9E%90%EC%9D%B8](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B%88%EB%B2%84%EC%84%A4_%EB%94%94%EC%9E%90%EC%9D%B8)
- 14) 인제대학교 디지털정보디자인연구실, 「사인디자인 실용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북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p.18.

## 참 고 문 헌

- 구본호,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해피북미디어, 2013.
- 김창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 강인한, 「마을만들기의 주제별 상호관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민정,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사례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순엽, 「프로젝션 맵핑 구현을 통한 도시벽화 콘텐츠 개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다희, 「문화마을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승원, 「감천문화마을 브랜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고동완,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연대 변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전재균, 「IRP분석을 활용한 감천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 방안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유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은영, 「국어 감정동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